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순장영성수련회’ 공동체 리더십 2,500여 명 참석
신임 리더십 다락방장 100명, 순장 374명 임명

2026 순장영성수련회가 ‘나를 따라라’를 주제로 지난 3월 2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올랐다. 국내 13개 온누리교회 공동체 리더십(담당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2026 순장영성수련회는 특순, 당회서기 민문기 장로 대표기도, 이재훈 위임목사 설교, 정진호 장로, 오창화 집사 강의, 스킷 드라마, 이기원 목사 ‘공동체 돌봄 가이드’ 강의, 패널토의, 온누리 인사이드 퀴즈, 간증 및 발표, 신임 다락방장·순장 임명식, 온누리 순장 어워드, 순장 선서, 기도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위임목사는 ‘어린이 이다움의 제자도’ (마 9:33-37)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목사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어린이와 같은 온누리교회 리더십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다락방장 및 순장 임명식에서는 예수님 따르는 신임 공동체 리더십 474명(다락방장 374명, 순장 100명)이 세워졌다. 김진성 다락방장(부천 화평공동체), 한윤석 순장(온사랑공동체), 나은희 순장(영등포구로공동체)가 대표로 임명장을 받았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하세미안 모하마드 토니, 김준숙, 이경수, 김현준, 정정욱, 이준형, 김기영 순장이 수상했다.

김광식 순장(대전 북누리공동체)은 “순을 더욱 잘 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2026 순장영성수련회.

되도록 힘쓰겠다”고 고백했다.

하세미안 모하마드 토니 순장(북누리공동체)은 “외국인 순장으로서는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에 감사하다”면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기를 부인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순장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홍하영, 박지혜 기자

4월 5일까지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이번 주 ‘바른 언어 생활’ 실천

창조질서회복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부인의 제자도’가 4월 5일(부활주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주(4주차, 3월 9-14일)에는 바른 언어 생활을 실천한다.

성인공동체와 대학청년부는 ‘바른 언어 생활: 죽이고 살리는 혀의 권세’ (시 141:3)를 주제로 비판, 불평, 정치적 혐오 발언을 멈추고 축복의 언어 사용하기를 공동 실천사항으로 지킨다. 요일별 실천사항은 월요일(9일) 부정적인 비판이나 불평 대신 긍정적인 언어 사용하기, 화요일(10일)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에 대해 하루 5번 감사 고백하기, 수요일(11일) 가족과 동료의 장점을 찾아 구체적으로 격려하기, 목요일(12일) 타인의 응답이 오가는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기, 금요일

(13일) 내가 언어로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먼저 화해 청하기, 토요일(14일)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인사하기 등이다.

차세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회복하기: 언어’가 주제다. 월요일(9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기, 화요일(10일)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하기, 수요일(11일) 친구나 가족에게 구체적인 칭찬하기, 목요일(12일) 남을 비난하거나 헐뜯는 자리에 있지 않기, 금요일(13일) 내가 언어로 상처 주었던 사람에게 사과 메시지 보내기, 토요일(14일)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밝게 웃으며 인사하기 등을 실천한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각 캠퍼스 본당

2026 작은예수 40일 새벽기도회(이하 40일 새벽기도회)가 벌써 3주차를 맞이했다. 올해 40일 새벽기도회에서는 주별로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3주차 주제는 ‘온전함의 길’이다. 3월 9일(월) ‘양값을 하지 말라’ (마 5:38~39),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 5:40~42), 10일(화) ‘원수를 사랑하라’ (마 5:43~45), ‘너희도 온전하라’ (마 5:46~48), 11일(수) ‘보이려는 의를 조심하라’ (마 6:1~2), ‘착한 행실을 은밀히 하라’ (마 6:3~4), 12일(목) ‘은밀히 기도하라’ (마 6:5

~6),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마 6:7~8), 13일(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 6:9),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마 6:~9)를 주제로 설교가 이어진다.

40일 새벽기도회는 4월 3일(금)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 유튜브 채널에서도 40일 새벽기도회 실황을 중계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 개강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금 오전 9시 30분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가 개강한다. 3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금요PRS(공동체성경읽기모임)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말씀과 신앙 고전을 읽고 나누며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한다. 간단한 간

식을 겸비한 교제 시간을 가진 다음, 10시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와 신앙서적 읽기 순서가 진행된다. 신앙서적은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디오북으로 듣고 읽는다. 참가신청은 3월 10일(화)까지 전화(010-5603-5500)로 하면 된다.

/ 박지혜 기자

3월 비전현금, ‘복음과도시’ 후원

3월 7일(토)과 8일(일) 봉헌하는 3월 비전현금은 ‘복음과도시’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복음과도시’는 복음 갱신, 교회 개척, 교회 연합을 목표로 창립된 초교파 기독교 단체다. 복음 중심적 신학과 신앙을 정립하기 위한 아티클과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복음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 훈련 등을 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온라인커뮤니티 상반기 개강

3월 24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Zoom)

온누리교회 온라인 돌봄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개강한다. 3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세 이상 온누

리교회 성도 중에서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이 어려운 성도들을 온라인으로 돌보는 공동체다. <생명의 삶>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면서 신앙 성숙을 돕는다. 여성민 목사(전도사 역본부장)가 강의한다.

문의: 카카오톡채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 박지혜 기자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오늘은 ‘도마’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을 들으면 곧 떠오르는 단어가 ‘의심’입니다. 도마는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아서 부정적인 제자로 알려졌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선입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의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질문한다고 해서 곧 의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의심 많은 제자라기보다 질문이 많은 제자였다고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의심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믿는 척할 뿐입니다. 그러나 믿는 척하는 것보다는 자신 안에 생겨나는 질문을 정직하게 던지면서 확실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자세가 훨씬 바람직합니다. 도마는 ‘질문을 통해 확신을 구하는 신앙인’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확신이 없으면 없다고 인정하면서 확신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 습니다.

도마의 성격과 신앙의 모습

도마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서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방 곧 베다니로 가시고자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 예수님을 공격하는 유대 권력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돌아가자”라고 하셨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의 위성 성읍입니다.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요 11:16).

도마의 이 고백은 이중적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뜨거운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시면 죽게 되실 게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비장한 헌신이지만 또 한 비판적인 태도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마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동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제자

들보다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위협을 실제로 판단한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항상 최악을 가정하는 성향을 보여줍니다. 도마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에 이를 거라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한 것은 비판의 골짜기를 통과한 비장한 용기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마의 성격입니다.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마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두 번째 본문은 도마가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눌 때 도마가 정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면서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길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분위기가 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아는 척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요 14:5).

도마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비합리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질문입니다. 이것은 더디 믿는 의심이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이며,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믿음에 필요한 질문이기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결코 책망하신 적이 없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결코 쉬운 성격이 아닙니다. 까다로운 성격입니다. 그러나 질문하는 태도는 ‘정직한 갈망의 표시’입니다.

도마의 이 질문이 없었다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마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주신 대답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입니다.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을 통해 길이란 세상의 철학이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살아계신 인격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길, 생명,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어떤 도덕적인 원리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란 당신의 인격, 생명도 인격, 길도 인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방법을 구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관계 말입니다.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질문하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목적 지이시며,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아는 척하지 않는 영적 정직성입니다. 신앙에는 분명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해될 수 있는 영역도 많습니 다. 이해될 수 있는 영역에서도 아무런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맹목적인 신앙으로 시험당할 때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질문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믿기 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확증을 구하는 도마의 신앙

질문하는 도마의 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남에서 증거를 구하는 신앙으로도 나타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줬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라고 말했습니다”(25절).

도마의 이 고백도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 믿을 수 있다는 면에서는 일종의 이성적인 회의주의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직접 만나보고 경험함으로써 내가 믿고 싶다’는 인격적인 체험을 구하는 갈망입니다. 도마의 고백 속에 나타난 갈망의 긍정적인 면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묻지도 말고 불필요도 없고 구하지도 않는 게 참된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기보다는 도마가 추구하는 자세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 믿겠다”고만 했다면 이성을 신앙

위에 두는 것이고, 과학을 하나님의 계시 위에 두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주신 것을 보면, 질문하면서 확증을 구하는 갈망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시며 채워주신 거로 봐야 합니다. 확증을 구하는 신앙을 무조건 선입견으로, 잘못된 것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신을 구하는 의심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직한 의심과 증거를 진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27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계시고, 의심도 다 알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를 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도마와 도마 같은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선뜻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고 영광스럽게 되신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매우 의도적입니다. 도마와 같은 이가 질문할 것을 아셨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주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29절).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성령 안에서 그분은 살아계시며,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도, 손으로 만지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증을 원하는 누구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고, 질문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입니다. 도마는 우리가 어떻게 의심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우리도 도마와 같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여”라는 확신 있는 참된 신앙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문을 정직하게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 안에서 대답을 받고 확신에 이르는 귀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내가 역사의 그릇된 편에 서 있는 걸까?

대화 중에 누군가가 어떤 신념 때문에 당신에게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비난하는 일이 있다. 그때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도덕 문제에 대한 논쟁에서 한쪽이 다른 쪽을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비난하는 일은 매우 흔하다. 보통 이런 비난은 성 윤리, 결혼과 양육, 낙태에 대해 더 전통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향해진다. 미래는 어차피 진보적 사상 쪽으로 굽어지는 긴 흐름을 따라가도록 예정되어 있기에 전통적 도덕은 결국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아무도 실제로 ‘역사의 옳은 편’을 알지 못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어떤 집단이나 사상이 승리할지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한때는 멈출 수 없어 보였지만 지금은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제국, 종파, 혁명, 사상가, 지도자의 폐허가 가득하다. 그들 대부분

당시 스스로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덜 중요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과거는 단순한 패턴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나쁜 편’이 승리한다. 때로는 ‘좋은 편’도 그다지 훌륭하지 않다. 때로는 초기에 이겼던 편이 결국 지기도 한다.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도리가 없다.

둘째, 역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이끄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역사 속 많은 문화와 민족은 시간을 끝없이 반복되는 사건의 원으로 이해했다. 현대 서구 세계에서는 시간을 시작에서 어떤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선형적 흐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역사를 이끄신다는 유대-기독교 세계관의 영향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역사는 분명한 시작과 하나님이 정하신 끝을 가진다. 그 끝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만 알 수 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역사는 의도된 종말을 갖지 않으며, 누구도 그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측할 수 없다.

셋째, 자신이 ‘역사의 옳은 편’에 있다고 선언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로 역사는 가득하다. 누군가를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옳은 편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혹하고 살인적인 정치 운동들도 그렇게 믿었다. 카를 마르크스는 역사가 필연적 이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헤겔의 사상에 크게 의존했다. 그는 그 이상이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며, ‘역사의 긴 방향성’이 결국 자본주의의 붕괴와 노동자 계급의 공동 통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자신들이 ‘역사의 옳은 편’에 있다고 확신한 이들에 의해 수천만 명이 죽었다. 나치즘 역시 더 강하고 순수한 종족이 살아남을 것이므로 천년 제국이 필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선전되었다. 다행히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동시에 네로에서 프리드리히 니체, 최근의 ‘신무신론자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과 도덕이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몰락을 예언했던 모든 이들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이나 당신의 신념을 ‘역사의 잘못된 편’에 서 있다고 비난할 때,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아무도 실제로 ‘역사의 옳은 편’을 알지 못한다.”

“역사가 불가피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을 이끄는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역사는 자신이 ‘역사의 옳은 편’에 있다고 믿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로 가득하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정치

교회와 정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류현모 교수
(온누리세계관학교)

정치는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 국가는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 국민의 행동을 일정 부분 규율하며, 악행을 처벌하고 분쟁을 해결한다. 그래서 정치의 방향은 우리의 일상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성경 역시 정치 권력을 우연히 생겨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로마서> 13장 1절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와 권위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일깨워 준다. 이 말씀은 고대 군주국이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민주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민주사회는 선거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주신 인권의 일부를 선출된 지도자에게 양도해서 통치권이 생기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 권력의 선택에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이 자연스럽게 담기게 된다.

그래서 투표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시간과 재능, 영향력과 선택의 기회까지)에 대해 언젠가 질문하실 것이다. 그 날은 예고 없이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설명하게 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의 한 표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억지로 이끌지 않으신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유를 주신다. 창조 때 아담에게 주셨던 자유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로 부르신다. C.S.Lewis가 말했듯 하나님은 명령만 따르는 장난감 병정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선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인격적 존재를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투표권을 소중히 여기도록 격려해야 한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고 신중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공직자로 선택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유권자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땅의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선거에 성실히 참여해야 한다. 완벽한 기준으로 선택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방향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

도들에게 명확히 알리는 동시에, 그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나 법이 왜 인간의 존엄과 자유, 생명의 가치를 약화하는지 성경적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 낙태나 안락사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법률로 인해 생명의 존귀함이 흔들릴 위험성 등을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야 한다. 교회는 정치적 결론을 대신 내려 주는 곳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경적 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교회는 정치 권력 자체가 되려는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 역사 속에서 종교와 권력이 아합할 때 신앙이 왜곡되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한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는 집단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다. 성도 개인은 시민으로서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하는 예언자적 공동체로 남아야 한다.

교회가 말하는 정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자유롭지만,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책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회가 말하는 정치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선택도 강요가 아니라 자유와 책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실 사람은 무엇을 선택할 때 단순한 기준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선, 정의, 이익, 관계, 감정, 경험 그리고 기억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 깊은 내면의 과정을 통한 선택을 다른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누군가 특정한 방향의 선택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강요는 거부감을 낳기 쉽다. 교회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선동하는 방식은 민주주의의 정신에도, 신앙의 본질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정치에 대해 교회가 침묵하

운 선택을 고민해야 한다. 투표 이후에도 선출된 정치인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입법이나 통치행위에 참여할 때는 유권자로서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참여다.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교회의 구성원이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반대되는 정치 행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고 있을 때는 주변의 친한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회개를 권유해야 한다. 효과가 없을 때 두세 사람이 함께 찾아가 권유하고, 이마져 거부할 때는 그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치리해야 한다. 이는 교회의 방향성을 성

예수 따르는 온누리 리더십

신임 다락방장, 순장 및 장기근속 순장의 다짐

“나를 따르라”(마 16:24).

온누리교회 리더십의 본질이자 사명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월) 서빙고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순장영성수련회’에서 예수 따르는 온누리교회 신임 리더십 474명(다락방장 100명, 순장 374명)이 세워졌다. 신임 다락방장과 순장, 장기근속 순장에 게 다짐을 물었다.

/ 편집자 주

신임 다락방장

“든든한 영적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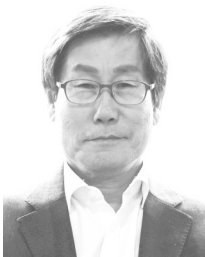
부족한 제게 다락방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처음 임명 소식을 들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앞섰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다락방장으로서 가장 닦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시며 발을 씻기신 겸손한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결코 권위로 굴복시키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제자들의 먼지 묻은 발을 친히 닦아주시는 고귀한 섬김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공동체의 어려움이나 순장님들의 고충이 있을 때 뒤에서 지시하기보다 마음의 수건을 두르고 순장님들 삶의 자리에 동참하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순장님들이 영적으로 지지치 않도록 그분들의 고민을 귀 기울여 경청하고, 기도로 든든히 뒷받침하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다락방이 되도록 헌신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과 공동체 식구 여러분, 제가 처음이라 서툴고 마음이 앞서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조언으로 불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역과 삶이 빛나도록 묵묵히 받쳐주는 든든한 ‘영적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울고 웃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의 깊은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성 다락방장
(부천 화평공동체)

신임 순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닦고 싶습니다”

처음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 안에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공동체 해외 아웃리치 팀장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라오스 아웃리치를 준비하며 너무 좋은 팀원들, 그리고 이신준 장로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기에 순장의 자리 또한 수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고 완벽한 계획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개인 사업을 준비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배 사업가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리에 ‘Yes’로 응답할 때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자마자 아웃리치 팀장과 순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기쁘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감히 예수님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완벽하게 닦아가기보다는 그분이 제자들을 어떻게

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 내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 ‘온사랑’ 그 이름처럼,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닦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공동체에 들어와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과분한 사랑을 순원들에게 베풀고 싶습니다. 공동체 최연소 순장으로서 새로 올라올 청년 부부들과 선배님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꿈꾸는 순은 친밀감이 넘치는 곳, 가족보다 가족 같고, 친구보다 친구 같은 공동체입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마음 편히 나눌 수 있고, 삶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나누는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윤석 순장
(온사랑공동체)

신임 순장

“섬김으로 예수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순장이라는 귀한 직분으로 세워진 것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장 훈련을 받을 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훈련을 통해 순장의 역할을 알아가면서 만약 제가 순장이 된다면 훈련받은 대로 정말 잘 섬겨야겠다고 결단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빨리 순장으로 세워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무척 부담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했더니 순원들을 더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순장으로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묵묵히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짐을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저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름다운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큐티(QT)를 생활화해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순장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순원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성숙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도록 돕겠습니다.

매주 얼굴을 맞닿 순 식구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매일매일 서로 사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Kingdom Builder)’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나은희 순장
(영등포구로공동체)

장기근속 순장

“십자가 사랑 오롯이 담아내겠습니다”

29년 전, 제 삶에 예기치 않은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베체트’라는 자가면역질환으로 8년 뒤 실명할 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깊은 자괴감에 빠져있던 그때, 〈시편〉 37장 24절 말씀이 캄캄했던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온누리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제 삶은 놀라게 회복되었습니다.故 하용조 목사님의 생애수 같은 말씀에 은혜를 누리던 중에 순장 직분을 권유받고 기쁘게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긴 세월 순장으로 섬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렸는데 단 한 분도 오지 않았을 때,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실 때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 고비마다 초신자 시절 순장님을 참 많이도 힘들게 했던 제 옛 모습을 돌아보며 순원들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함께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되고, 굳어 있던 순원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을 볼 때마다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순장으로서 제가 가장 닦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입니다. 온전한 십자가 사랑을 제 삶과 사역에 오롯이 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신임 순장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장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축복의 직분’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순원을 위한 중보기도를 놓을 수 없기에 자연스럽게 말씀이 이끄는 삶의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힘들게 하는 순원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돌아보고, 기쁨을 주는 순원을 통해서 함께 감사하게 됩니다. 순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장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김기영 순장
(인천 희락공동체)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미국-이란 전쟁, 레바논 선교사 현재 상황 알려와

지난 2월 28일(토)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전역에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해온 레바논에 파송된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은 안전한 상태고, 피난민들을 섬기며 선교지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아부다비온 누리교회와 이란에 파송된 온누리교회 선교사들도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레바논에서는 이미 수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고, 시리아군이 레바논 국경을 침입할 가능성까지 제기돼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들은 본인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과 시리아 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박수환 선교사(레바논)는 “다수 선

교사의 거주지와 사역지가 있는 레바논 베카 자흘레 및 베이루트 일부는 기독교(마론파) 지역이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상황을 알렸다.

레바논에 파송된 온누리교회 선교사들의 상세한 현지 상황과 기도편지 전문, 중보기도 제목 등을 QR 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파워웨이브 청소년 31명, 청파노인복지관 방문 어르신 20가정에 식료품과 편지 선물



온누리교회 차세대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 31명이 지난달 26일(목)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설 청파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어르신 20가정에 식료품을 전달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후원 물품을 포장하고 어르신들에게 손편지를 작성해서 전달했다.

이상욱 목사(파워웨이브 담당) “3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 활동이 더욱 뜻깊은 의미를 지니길 바란다”면서 “청소년들의 진심 어린 방문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갑록 관장(청파노인복지관)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이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온기가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이들을 가정의 품으로!”

제이흠, ‘공적입양체계 개선 촉구 시위’ 참석

온누리교회 입양위탁가정모임 제이흠이 지난 2월 25일(수) 아동권리 보장원 앞에서 열린 공적입양체계 정상화를 위한 ‘공적입양체계 개선 촉구 시위’에 참여했다. 이날 시위에는 온누리교회 입양위탁모임 제이흠, 전국입양가족연대, 입양정상화 추진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등 입양 관련 12개 단체가 함께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9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하는 ‘공적입양체계’를 가동했다. 이전까지 국내입양은 전문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되다가 입양 관련 사무에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입양체계를 마련했다. 그러나 공적입양체계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가정의 품으로 간 아동은 한 명

도 없다. 입양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예비입양부모 570가정,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아동 270명이 마냥 대기 중이다. 결연된 아동 18명은 행정적 사유로 가정에 인도되지 못하고 있다.

유보연 대표(입양정상화추진부모연대, 제이흠)는 “아이들이 부모 없이 시설에서 크지 않도록 공적입양체계 행정구조를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 제이흠)는 “생애 초기 12개월 이전의 가정 보호가 아이의 평생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국가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시설에 가두지 말고, 하루속히 따뜻한 부모의 품으로 가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홍하영 기자

장로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장로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회홀에서 열린다. 전반기 4월 14일부터 5월 26일까지, 후반기 9월 1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장로(2021년 임직 장로

까지)가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온누리교회 장로는 3월 10일(화)까지 목회행정실 김경렬 간사(mtop1@nate.com)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원은 30명,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3215-3234

/ 홍하영 기자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서빙고와 양재 ‘시니어아카데미’가 개강한다. 서빙고 3월 11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두란노홀, 양재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당일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서빙고(02-3215-3220)

양재(010-7347-3473)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개강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양재 107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3월 2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에서는 성경과 역사에 기초한 하나님의 선교를 배운다. 온누리교회의 선교 비전과 사역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문의: 010-5320-6818

/ 박지혜 기자

서빙고 OBC 불학기 참가자 모집

서빙고온누리교회 OBC(Onnuri Bible Club) 불학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편>(3/12~4/23), <하나님의 성품>(3/13~4/24), <그리스도인의 삶>(3/18~5/6), <고린도전서>(4/6~5/25)를 주제로 각각 8주 과정이 개설된다(더 자세한 사항은 아이스쿨 참고).

참가신청은 3월 13일(금)까지 아이스쿨이나 현장등록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문의: 010-8480-9970

/ 박지혜 기자

CGN 특별 세미나, ‘나침반Q’

창조과학전문가 이재만 선교사 강의

CGN이 주최하는 특별 세미나 ‘나침반Q’가 지난 3월 5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렸다. ‘나침반Q’는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오프라인 강의 프로그램이다.

첫 번째 세미나는 창조과학전문가 이재만 선교사가 ‘과학으로 입증하고 성경으로 확신하는 창조의 신비’를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1부 ‘방주박 이야기’, 2부 ‘홍수와 방주’를 주제로 강의가 이어졌다.

‘나침반Q’는 오는 5월 두 번째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이다. CGN ‘바울로부터’ 출연자 최종상 선교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와 초기 교회의 탄생 비화’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의: 02-3275-9303

/ 박지혜 기자

메디엑세스 특강, 첫 번째

메디엑세스 및 의료 NGO 임직원, 의료진 등 54명 참석

의료선교플랫폼 NGO 메디엑세스가 지난 2월 21일(토)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의료 NGO 특강 ‘메디엑세스 특강, 첫 번째’를 개최했다. 메디엑세스 임직원, 국내 의료 NGO 임직원, 의료진 등 54명이 참석했다. 메디엑세스 특강, 첫 번째는

박영한 부대표(메디엑세스) 기도, 김병순 대표(메디엑세스) 인사, 메디엑세스 사무국 ‘메디엑세스를 말하다’ 발표, 김억 목사(前 아프리카 미래재단 사무총장), 김선 부총장(굿네이버스)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NGO 더멋진세상, 코트디부아르에서 ‘ICT 강사 교육’ 실시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2월 16일(월)과 17일(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ICT 강사 및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ICT 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ICT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의 약자로,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

GI)와 협력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기초적인 MS Office부터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전문 분야에 이르는 폭넓은 강의가 이어졌다. 김현주 장로, 정소은 권사, SNS청년부 청년들(박요셉, 배순호, 서성원, 홍승호 형제)이 강의했다.

통일선교학교 4기 수강생 모집

‘통일선교학교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14일부터 5월 9일(5/2 휴강)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아이스쿨,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청

하면 된다. 문자메시지로 등록할 때는 이름, 성별, 소속, 출생년도, 교재 수령 주소를 기록해야 한다. 회비는 교재와 아웃리치 비용 포함 5만 원(대학청년부 3만 원).

문의: 010-2951-1322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간증



/ 오형석 성도(이촌공동체)

어머니의 구원과
순종의 발걸음

내가 온누리교회에 발을 들인 것은 1년 반 전이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신앙을 위해 중보 기도 해오다가 어머니가 먼저 교회를 찾고 예배에 참석해 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다. 나와 아내는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를 시작으로 여러 교회를 모시고 다녔는데, 온누리교회 토요일예배에 참석하시고는 다음 주에도 오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이를 계기로 두 달을 더 모시고 다니다가 2024년 6월, 어머니와 함께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이하 일대일) 동반자반을 수강했다.

일대일 동반자반을 수강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다. 어머니도 16주 동안 이어지는 일대일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셨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셨다.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섬겨주신 세 분의 양육자 모두 헌신적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 그 과정에서 나도 온누리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귀한 영혼들을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일대일 양육자과

정을 신청했다.

양육자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바쁜 나날이었지만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깊이 다가왔다. 교재를 묵상하고 과제를 수행할 수록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부족한 자를 초대해 주신 것이 감사했고, 구원사역에 동참한다는 사실이 큰 기쁨이었다. 특히 목사님의 인도가 큰 감동이었다. 목회자로서의 솔직한 나눔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책임감 있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이 큰 귀감이었다. 팀장님을 비롯한 스테프들의 깊은 헌신과 같은 조 동기 형제들과 나눈 은혜, 16주 동안의 변화도 큰 힘과 위로였다.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 모두를 온누리교회로 인도하셨다. 일대일 양육을 통해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례를 받는 은혜를 누렸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며 새롭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순종하는 일대일 양육자가 될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영광과 찬양,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린다.

■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간증



/ 유창선 집사(안동교회)

미리 맛본 천국의 기쁨

성령 충만하고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고, 정규 예배 외에 봉사 활동도 적은 편이었던 나에게 시니어아카데미 출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었다.

시니어 아카데미에 출석하던 첫날,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 가득한 존중과 섬김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음을 기억한다. 그래서 지난 4학기 동안 열정적인 섬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곳에서 봉사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교회를 향한 진정한 희생과 섬김의 영을 부어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시니어들의 마음을 움직여 드림홀 전체가 사랑과 존중으로 빛나는 것이었다.

매주 시니어 아카데미가 있는 날, 조금 일찍 도착하면 어김없이 봉사팀 전원이 모여 아침 점검 회의를 하는 모습을 봤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출석하는 한 분 한 분을 정성으로 환영해 주시고, 한편에서는 찬양 준비가 진행됐다. 시니어들에게 꼭 맞춘 주제로 아침 설교가 시작되면 이곳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장소로 변했다. 오후에는 어느 곳보다 훌륭한 점심 식사와 시니어 맞춤형 특강이 이어졌다.

이곳에서 느끼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봉사자들의 개인적인 희생과 진정한 섬김 없이는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다. 지난 4학기를 지내는 동안 항상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사랑을 시니어들에게 선물해 주신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헌신적인 봉사자들의 자기희생과 섬김에서 시작된 사랑의 파도가 시니어아카데미 수강생 모두에게 전해져 핵분열같이 폭발적인 큰 사랑의 힘으로 나타났다.

온누리교회 모든 곳과 시니어들의 삶의 터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때, 우리의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지고,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져서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시니어아카데미를 위한 기도를 드리며 글을 마친다.

“하나님 아버지, 시니어들을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하며 정성껏 섬기는 시니어아카데미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울러 시니어아카데미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노년을 섬김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17기 파워임팩트 참가자 간증



/ 홍수현 성도(남양주온누리교회)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는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라서 결혼생활은 힘들고 불행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원가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했다. 내 결혼만은 다를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도 있었다. 그런데 행복을 원하면 원할수록 역설적으로 더 불행했다. 나에 비하면 아이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라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기에 17기 파워임팩트를 신청했다.

하성희 목사님의 강의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들으며 많은 부분을 회회하고 회개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함에도 ‘지금 시대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려 했던 욕심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이제는 “이ानी와 시온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먼저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다. 방향기도, 뜻도, 엔진도 없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자를 떠올리며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었다.

또 김숙경 소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가정과 부부가 어떠한지 하는지 분명한 그림을 그리

게 되었다. 남편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예수님께 하듯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기본값임을 배웠다. 남편 역시 역기능적 가정에서 자랐기에 대화를 나누면 주로 신세 한탄으로 끝나곤 했다. 하지만 서로가 듣고 싶은 말을 나누고 글로 적어 보며 우리가 진정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임을 깨달았다. 남편은 강의에서 배운 대로 공감하려 애쓰고 있고, 나는 MBTI(성격유형검사)를 통해 알게 된 남편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먼저 알아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내 아이이기엔 잘 안다’는 착각과 ‘잘 모르겠다’며 외면하는 것에서 벗어나 관찰하고 묻고 알아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제는 지레짐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세심하게 묻고 관찰하려고 힘쓰고 있다.

지난날의 좌절과 절망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린다.

■ 온누리교육선교스쿨 6기 수료 간증



/ 한은희 집사(성북공동체)

자녀,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의 자리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선교 실행위원 기도 모임에서 현직 교육자뿐 아니라 부모들도 온누리교육선교스쿨에 참여해서 자녀교육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도 얼른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다.

그동안 나는 신앙과 경험의 범위 안에서 ‘보내는 선교, 무를 선교’라는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해 왔다.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바른 양육이라고 믿었고, 부족하지만 방향만큼은 분명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세상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했다. 자녀가 던지는 질문들은 순간순간 나를 당황하게 만들며 순종과 통제만으로는 다음세대를 세울 수 없음을 절감하게 했다. 온누리교육선교스쿨 첫 강의를 통해 교육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관점으로 세상과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었다. 교육은 결국 세계관의 문제이며, 말씀이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특히 ‘다음세대와의 동행’이라는 표현이 가슴 깊이 남았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에 이미 천사가 있다고 믿으며 조각한 것처럼, 아직 다

들어지지 않은 자녀 안에 하나님이 빚어 가실 아름다운 형상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인내가 내게 필요한 태도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소명은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의 필요와 만나는 자리’라는 정의도 마음에 새겨졌다.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며, 선교적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분명한 소명의 자리임을 깨달았다. 또 교육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내 존재와 태도임을 돌아보게 되었다. 자녀의 존중을 바라면서도 정작 나는 자녀를 존귀하게 대하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했다.

앞으로는 자녀를 ‘내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교의 자리’로 바라보고자 한다.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동행하며 삶과 말이 일치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소망한다. 교육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이 땅의 역사에 감사하며, 배움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한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육대리인으로서의 선교사 사명을 위해 부모로 부름을 받은 내 가정

이 가장 가까운 선교지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